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정헌을 익산시장, 국회 단계 국비 증액 위해 여의의원 초당적 지원 요청

익산시는 미래 성장동력인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헌을 시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예정위 여·의의원 등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방문해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 센터 구축 등 시 중점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등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개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용호, 신동근, 진성준 의원 및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회 안호영 의원, 익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수홍, 한병도 의원 등 여·야를 넘나들며 핵심 인사들을 만나 국회의 심의 단계에서 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한편 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관을 운영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제공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회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에 나서는 등 내년도 국가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회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군산시, 신규 국가예산 35건 2조 1813억원 규모 발굴

군산시는 8일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35건(산업분야 4건, 문화분야 5건, 복지분야 4건, 건설분야 6건, 농업분야 11건, 상하수도분야 5건)에 총사업비 2조 1,813억원 규모로 전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됐다.

이번 발굴된 주요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차세대전자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군산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IFSC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유치, △공강정책 생태축 복원사업, △새만

금 동선속 10차로 확장, △국도21호선 육산교차로 개선공사 등이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서 '정책자문단', '전북연구원', '직원 정책발굴 TF'로 구성된 '군산시 정책개발 추진체계'를 구축 군산시 정책자문단의 발굴아젠다 보고와 전북연구원의 국책사업 발굴용역 추진계획 보고가 함께 진행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2025년도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군산시-전북도-정치권 공조를 강화해 예산 반영을 위한 정부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가 국가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인 만큼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고교생 무상교통 시행

20일부터 1단계 우선 시행... 6일부터 무상교통 전용카드 발급 온라인 신청

군산시가 오는 20일부터 관내 고등학생에 대한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약사업인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은 지역 내 이동 증가와 교통비 절감으로 지역경제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고등학생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1단계는 고등학생, 2단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무상교통은 1단계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시는 무상교통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

의를 마쳤으며, 지난 7월 말부터 무상교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추진하는 무상교통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으로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상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무상교통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지난 6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군산시 무상교통 홈페이지·'모바일 웹(freibus.gunsa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카드는 신속한 배부를 위해 고등학교 협조로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통해 신청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무상교통비는 군산 지역 시내·마을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지원으로 매일

한도 내에서 실제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한 교통비를 정산해 다음달 고등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월 지원 한도는 5만원(일2회×월20일×1,250원)이다.

유의할 사항은 무상교통 전용카드가 아닌 현금 다른 교통카드 이용 시 무상교통비 지원이 불가하며, 승·하차 시 무상교통 전용카드를 미태그미집속)할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무상교통 전용카드를 신청·수령 후 무상교통 전용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승·하차 시 반드시 태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무상교통비가 고등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절차'라며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익산시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은 국내 최대 투자유치 박람회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 제전시장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 등을 제시하고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및 인프라(12개 식품지원시설) 홍보 등 대한민



국 식품 기업 특화 산업의 강점을 내세워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섰다.

또한 식품 관련 업종의 국내외 관계자를 찾아가는 투자상담회를 진행 국

가식품클러스터산단의 투자 환경 인프라와 유치 전략 등을 소개했다.

지역 식품 기업 1곳이 함께 참여하여 해외 기업들에게 직접 제품을 알리는 등 식품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홍보의 장도 마련해 주었다.

올해 19회차를 맞은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은 대한민국 핵심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 및 첨단산업에 기반을 둔 지자체와 정보교류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최대 투자홍보 행사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패션주얼리, '빛나는 스튜디오' 구축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지역 주얼리 기업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전용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연구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에서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얼리직접산업센터 2층에 빛나는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빛나는 스튜디오'는 △주얼리 제품 촬영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 △화상 및 디지털 회의실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 방송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촬영·송출할 수 있도록 촬영과 편집에 대한 제반 장비들을 지원한다.

또 주얼리 기업들의 라이브 커머스가 직접적인 매출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CRM마케팅, 전문 장비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익산시 주얼리 기업들은 예약을 통해 스튜디오와 촬영 장비를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다.

연구센터는 '빛나는 스튜디오'를 활용해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수요일마다 지역 주얼리 기업들과 시범방송을 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주얼리 소비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빛나는 스튜디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운동장-쌍천로 간 도시계획도로 13일 개통

군산시는 월명운동장(경기장로) ~ 군산간호대학교(쌍천로)를 잇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당도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03억을 투자해 총연장 L=850m 폭 B=30m의 6차선 도시계획도로다.

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안전 및 편의·교통정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도로가 개통되면 운동장을 찾는 시민들과 사정동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설운동장과 바로 연결돼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조촌동 디오션시티 등 도심과의 접근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기관장·공직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군산시는 8일 시청 대강당에서 기관장 및 5급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시 직원은 4대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맞춤형 대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 전문강사인 한희선 강사(現 우석대학교 겸임교수)가 콘텐츠 활용으로 본 폭력예방 교육,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갯'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고위공직자가 성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기자



전주매일 캠페인